

순정이

연중 제 5 주일

제 1 독서 : 욕 7, 1-4, 6-7
제 2 독서 : 1 고린 9, 16-19, 22-23
복 음 : 마르 1, 29-39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마르 1, 38).

강론

“우리가 찾는 하느님”

김기수 신부 / 임실 천주교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영성적이고 천상적인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속적, 육체적으로 일시적인 고통과 질병을 없애주고 마귀를 쫓아주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현세적, 세속적인 군중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당신이 의술이나 구마로 인해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하느님의 참모습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순간적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기에 우린 솔직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신앙의 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우리 역시 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있지 않는지요? 불치병이나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낫기 위해서, 사업 번창이나 입신 출세를 청하기 위해서, 좀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만약 이런 순간에, 이런 목적에 주님을 찾는다면 2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나의 세상 삶을 위해 필요한 하느님이라는 진실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느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좀더 깊숙히 신앙의 문을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자그마한 행복(부귀영화)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말고 진정 사랑과 평화의 원천이신 참다운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리

다시 고개든 ‘남침 위험’

걸프전쟁이 일어나자 이 추한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드디어 개입했다.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에서 영양분을 취해왔다. 하다 못해 서부 활극이나 공상과학영화에서라도 총쏘고 무찌르는 전쟁을 해야 미국적인 문화가 된다.

2차 대전에 이어 한국전쟁, 끝이어 월남전, 드디어 걸프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세계의 분쟁들에 주인 역할을 하면서 공산주의도 쳐부수고 ‘나쁜 놈’도 없애는 힘센 나라로 행세한다.

이런 미국은 흔히 제국주의, 파쇼정권의 보호자, 쿠데타 만들기의 선수라고 불리운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전쟁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한다. 전쟁이 없으면 미국은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불황을 맞는다.

최근 걸프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후, 북한이 그 유명한 이라크의 미사일 무기 스킨드 폭탄을 휴전선에 배치해 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남한은 남침 위험을 다시 느껴야 한다는 진단도 해주는 평론가도 있다. 전에 늘 듣던 이야기이다. 물가폭등의 불안감에 냉전소식까지 겹쳐 찬물을 끼얹었다가 끓는 물을 퍼부었다가 돌아나는 느낌이다.

신앙인은 역사를 꿰뚫을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신앙인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이다. 참과 거짓, 양심과 비양심, 신앙과 광신의 차이를 누가 가려줄까? ☹

순정이 산책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금년은 교황 레오13세의 위대한 회칙, ‘노동헌장’ 반포 백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 회칙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회칙입니다. 이 회칙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수많은 인간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저개발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연대할 것을 끊임없이 호소하여 온 점입니다.

창조와 창조의 선익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들이 아직도 빈곤이라는 참기 어려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도 이미 천명하였듯이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랑과 실천하는 연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는 대신에 타인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고,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복음적 가치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자세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1.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사랑이시며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께로 다시 한번 다가가 우리의 이기심을 치유하여주시길 것을 간구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주실 것을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순절과 다가오는 부활시기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이들과 전적으로 동일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도록 요청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일치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표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0).

2. 사순절기의 정점인 성목요일에 이르러 전례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례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표현 하는 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셨던 빈곤과 고통과 박해를 보다 심원하게 인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성체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몸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양식으로 주신 바로 그 예수께서 당신 자신과 그토록 철저히 동일시하셨던 가난한 이들의 삶 속에서 당신을 찾아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요한 금주 성인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가난한 이들과의 일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경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당 밖에서 추위에 떨고 벌거벗은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로 성당 안에서 벌거벗은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비단천에 싸인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3. 사순시기에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삶의 잔치상에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불림을 받았으나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라자로처럼 문밖에 앉아서 개들이 몰려와 그들의 종기를 핥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루가 16, 21 참조). 단순히 절대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주거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남아 있지 않은 수많은 인간들의 상황을 외면한다는 것은 바로 거지 라자로를 모른체한 부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루가 16, 19-31 참조). 우리는 결코 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을 찢는 비참의 상황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받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아프리카 사헬지역 방문시에 하였던 호소를 되풀이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형제 자매를 살해하고 있는 이 세대의 무관심에 대하여 역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입니까? 빈곤이 생명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세상을 사막이라 일컬었지 아니하던가요?”

착한 사마리아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택하셨던 말구유의 가난과 전적인 자기 포기의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로부터 집착을 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날 준비를 갖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음적 가난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을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이 가르치신 복음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러한 자각을 높이고 애덕에 대한 우리의 투신을 커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이 지나가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으로 새롭게 거듭나 부활의 기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大 入 宗 합 班
 개 강 2月 12日
 현재 상담 접수중

대진원 철학생학원
 전주 74-7424 85 7424 시립일 동방생명빌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 (요 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역
 ☎ 84-7294

비비안·빅 맨
 남문 전문점
 최 보 근 (루시아)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문역
 ☎ (0652) 82-0891

잡 관 /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전례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사람은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마에 재를 얹어주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마에 재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허무함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당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주셨기에 그것은 당신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난과 겸손, 전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되어 살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과 하나되어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의 인격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금년도 사순절 담화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당신 자신을 가난한 이들과 동일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년 맞는 사순절, 우리는 항상 이맘 때가 되면 으레 그랬듯이 재를 지고 애굽을 하고, 희생을 하고, 악습을 고치고, ...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존재를 주님께 투신하고 복음에 충실함으로써 내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교 구 소 식

1. 사제 평의회 : 2월 12일(화) 오전10시30분 교구청
2. 사순절 특별 강론 : 2월17일 오전10시30분 전동 성당
3. 설날 휴무 : 14일-16일
4. 초등부 교리교사 동계 연수 : 2월 19일~21일 무주 자연학습원
5.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 11일(월)-최의 연대성(정인섭 선생), 13일(수)-삶의 주제(최용준 신부), 16일(토)-인간이신 하느님(홍보국)
6. 노동자의 집 축성식 : 오늘 오후2시 오룡동 성당 미사-이병호 주교
7. M.B.W. 대화과정 : 2월25일(월)-27일(수) 천호 피정의 집 회비-35,000원 대상-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출발-25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8.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2월 12일 10시30분 대상-미혼자, 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가톨릭센터 별관 4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9. 전화번호 신실 : 용안 천주교회 수녀원 861-7258
10. 전화 국번 변경 : 순창 천주교회 53국
11. 나바위 성당 소개 : 17일 오전 7시10분 MBC-TV 법석규 신부
12. 바로 잡음(2월 3일 2면) : 사순절 단식은 만 18세부터입니다.

- **성소모임** 성령선교수녀회 : 오늘 오후2시 본원(02)764-4750 파티마성모수녀회 : 2월17일 오후 2시 본원(0331)8-5883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2월17일 오후2시 숲정이 성당 수녀원 252-9567 성프란치스코수도회(피정) : 고등학생 2월25일-27일, 일반·대학생 3월2일-3일 회비-10,000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02)753-4690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2) 크고 복잡한 것보다 작고 단순한 것으로!

현대인들은 갈수록 더욱 크고 복잡한 것만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한다면 작고 아담한 방, 단순한 생활용품과 소박한 생활양식이 우리의 정신에 여유를 줄 것입니다.

요심이 (914) 김병오



제18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1. 개최 일시 : 1991. 2. 23(토) 13:00
2. 개최 장소 : 전북 예술회관 4층 공연장
3. 부의 안건 :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 안건 외 6건
1991. 2. 10

전국 대건시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후 만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은 · 민청당시영
☎ 86-2715

초·중·고등부·개인지도식 교육

광영재속셈수학학원

유치부(한글터득 및 속셈 숫자 지도)
장 재 식 (베드로)
원 속 영 (가타리나)
우신APT 입구 백미약국 2층
☎ 76-1300

축 / 개 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어 부케
폐백 의상 연주복 신부화장
이리시 목화예식장 옆
☎ 52-1187
정기연 (차별로) 황인덕 (마꼬라)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점(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풍남로, 흥간, 송악국 시거리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재의 수요일(단식·금육제): 13일 각 반회장은 성미주머니와 저금통을 찾아가세요.
 2. 설 합동위령미사: 15일 새벽 5시30분 금육제 없음.
 3. 자모회 총회: 17일 공식미사 후.
 4. 교리교사 모집: 17일까지 면접-17일 오후 8시.
 5. 88년도 5월 영세자 모임: 24일 공식미사 후 소성당.
 6.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누녀회 상임위원회-13일 어머니 미사 후, 기도회-14일 저녁미사 후, 베소라성서-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교리실.
 7. 금주 청소: 인후3·4반, 차주 청소--인후5·6반.
- 지난해 봉헌금: 809,050원 □ 교무금: 69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 사순절 신앙강좌: 제1강의 "성서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장사 김진석 신부님) 19일(화요일) 저녁 7시30분. * 설날 대축일 미사: 15일 새벽 6:30, 오전 10:30 미사 합동위령미사 14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1.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재의 수요일: 13일 저녁 7시미사(10:30분 어머니미사 없음).
 5. 구역분과회: 16일 오전 10시.
 6. 성무회: 17일 공식미사 후.
 7. 사순절 저금통: 13일까지 빠짐 없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수녀님들이: 김비비아나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함 막달레나 수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성당청소: 16일 사랑교실 어머니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봉헌-육경주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오경화 독서·봉헌-오장수 씨 부부
- 지난해 봉헌금: 526,510원 □ 교무금: 1,034,5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1. 재의 수요일: 13일(재의 예식 있음)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생각합시다.
 2. 설날합동 위령미사: 15일 10:30분 미사예를 접수 하세요.
 3. 성지가기: 사무실에 보내 주세요.
 4. 감사 제대꽃: 박귀철-2구좌, 유길자-1구좌.
 5. 청년회·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 이옥동 ② 김순이 봉헌-강문옥, 김단오 씨 부부
 - 설 날: 해설-김경재 독서① 유순천 ② 정미순 봉헌-최상옥, 최상운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 정한도 ② 주영례 봉헌-유순천, 유춘근 씨 부부.
 7. 애령회 간부모임: 화요일 저녁 5:30 장소: 성당 사제관.
- 지난해 봉헌금: 257,960원 □ 교무금: 45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장 명 웅

- ※ 오늘은 연중 제5주일.
1. 회의: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성심회-2월13일(수) 오후 2시 ③ 재속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 2시.
 2. 모임: ① 전례부-오늘 저녁미사 후 ② 울뜨레아-2월13일(수) 저녁미사 후.
 3. 알림: ① 구정합동위령미사-미사예를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미사시간-2월15일 오전 10시30분) ② 재의 예식-2월13일(수) 저녁 7시(단식·금육) ③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를 사무실로 가져오세요(2월12일까지) ④ 본당 청년들을 위한 1일피정-2월 10일(일) 오전 9시부터, 파견미사 오후 7시(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570,300원 □ 교무금: 31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새 수녀님 환영합니다: 김환숙(실비아) 수녀.
1. 성지가기: 오늘 저녁미사 때까지.
 2. 재의 수요일 전례: 수요일 오후 8시(단식과 금육).
 3. 설날명절 미사: 오전 10시30분.
 4. 예비자교리: 금요일 오전 11시(주부반)-토요일 오후 5시(학생)
 5. 빈병수집: 용료수 1.5ℓ. 6. M. B. W 대화과점: 2월 25~27일(2박3일)천호피정의 집.
 7. 남성 성가대: 금요일 저녁 8시 연습 많은 참석바랍니다.
 8. 찜주, 떡국, 떡볶이용 떡판매. 9. 구역·반모임 적극 참여합시다.
 10. 초·중·고 교리교사 금구합니다. 젊은이(학생·직장인)들의 봉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수녀님, 청소년부장, 주일학교 교사회.
- 지난해 봉헌금: 485,280원 □ 교무금: 736,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현금 비람. * 91년도 교무금 신임바람.
1. 주일현금 배가운동.
 2. 1미사지향: 2월부터 실시.
 3. 주일(일요일) 차안타고 오기.
 4. 자모회: 오늘 오전 10시.
 5.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구역·반장 모임: 11일(월) 오전 11시(2월안).
 7. 7월부터 주일(일요일) 혼인없음.
 8. 재의 수요일: 13일(수) 단식·금육제.
 9. 구정 합동위령미사: 15일(금) 금육·단식 면제, 1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10. 사순절 신학생 후원 돼지저금통 반장 통해 분배: 1세대 1개. □ 지난해 봉헌금: 1,502,080원
- * 금주보수비현금액: 7,540,497원 * 현재모금총액: 193,164,200원 금주보수비신입액: 200,000원 * 현재신입총액: 242,719,618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설날합동 위령미사: 전5시30분, 10시30분 사무실에 접수.
 2. 재의 수요일: 13일 저녁 7시, 금식-18세~60세, 금육-14세부터.
 3. 성미주머니와 신학생 후원 저금통: 사순절 동안 매일할 것.
 4. 가정방문 일정: 12일 전9시-3구역3반, 후-3구역4반, 4구역1반·2반, 13일 후-4구역3반, 4반, 전9시부터, 후2시부터.
 5. 회의: 재대회 공식미사 후, 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차주 전례: 분치구 복사-박종구, 장치규 봉헌-서기원 부부.
 7. 성체조배: 매주 월요일 전6시~후10시까지 L. M 단원은 의무.
 8. 전별금을 건축현금으로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 이재후 신부 1,556,000원, 박병준 신부 500,000원, 권태태사 수녀 700,000원.
- 신축현금: 2,916,000원 신축2차 현금: 223,030원
□ 지난해 봉헌금: 598,060원 □ 교무금: 40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설날합동미사 예를 접수: 14일(목)까지 사무실에 접수해주시시오-미사시간: 오전 10시30분.
- 금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김현옥, 정효식
- 차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박영숙, 이종현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장 수 석

- ※ 사순절을 거룩히 지냅니다(13. 수요일부터 40일동안). 1. 축 설날 대축일(15일): 미사안내 ① 06시 ② 10:30. * 축은 부모·형제·친지·은인 위한 위령 합동 미사 예를(사무실에 접수). * 이날 금육제가 관면됩니다. 2. 재의 수요일(13일): 06시와 후 7시 미사중에 재의 예식 있음. * 성지가기-오늘까지 사무실에 반납바람. 3. 모임안내: ① 울뜨레아-24일 오후 7시미사 후(환영성결함) ② 모니카회(중·고자모회), 대회사회(초등자모회), 20일 10:30 많은 가입 바람. 4. 범석규 신부님 특별강론: 다음주 4대 미사중. 5. 청소봉사: 쌍용2단지, 삼천주공 동서편. * 오늘 본당 대축소 있습니다(11시미사 후). 6. 전례부 치장: 유인숙 마리아. 7. 교무금을 신임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1,011,760원 □ 교무금: 1,447,000원
□ 2차현금: 213,011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2. 구정합동미사: 선영을 위하여 미사예를 봉헌을 정성껏 합시다.
 3. 성지가기 성당으로 반납하여 주세요. 4. 재의 수요일: 13(수) 단식과 금육 저녁미사.
 5. 주일등록1통씩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세요. 차주 모임: 사목회, 새벽회, 25일부터 구역(반)별 춘관공성사 있음.
- 성전신축 총 신입액: 70,250,000원 봉헌액: 2,415,000원
금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 임병용 ② 이혜숙
기도① 김경구 ② 천축수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나귀준 ② 박혜숙
기도① 임희준 ② 조정옥
- 지난해 봉헌금: 843,980원 □ 교무금: 1,110,000원